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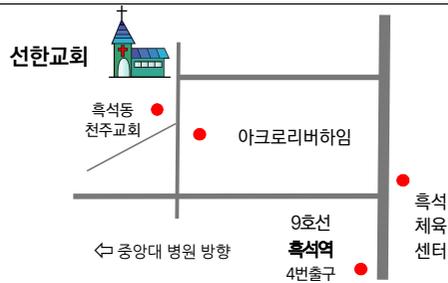
예배 및 모임 시간 안내

|                  |                |                        |                        |
|------------------|----------------|------------------------|------------------------|
| <b>주 일 예 배</b>   | 1부 주일 오전 9:30  | <b>부서 예배 및 모임 (주일)</b> |                        |
|                  | 2부 주일 오전 11:00 |                        |                        |
| <b>오 후 예 배</b>   | 주일 오후 3:30     | 유 아 부                  | 오전 11:00 남전도회 오후 2:00  |
|                  | (5째주 셀가족모임)    | 유 초 등 부                | 오전 11:00 바 울 회 오후 2:00 |
| <b>중 국 어 예 배</b> | 주일 오후 4:00     | 청 소 년 부                | 오전 10:00 마리아회 오후 2:00  |
| <b>수 요 예 배</b>   | 수요일 저녁 7:30    | 청 년 부                  | 오후 1:00 드보라회 오후 2:00   |
| <b>금 요 기 도 회</b> | 금요일 저녁 8:30    | 영 어 예 배                | 오후 3:30 에스더회 오후 2:00   |
| <b>새 벽 예 배</b>   | 월-금요일 새벽 5:30  |                        |                        |
|                  | *월삭새벽예배 6:00   |                        |                        |
| <b>셀 가족 모임</b>   | 셀별로 정한 시간      |                        |                        |

섬기는 분들

|                |              |                  |                      |
|----------------|--------------|------------------|----------------------|
| <b>사 역 자</b>   | 담임목사 임 춘 배   | <b>국 내 선 교 사</b> | 오인숙, 한 배 선, 강 성 규    |
|                | 교육목사 권 인 혁   | <b>해 외 선 교 사</b> | 이금춘(김인실), 조나단(강야엘)   |
|                | 전임전도사 김진만    | <b>협 력 교 회</b>   | 기쁨교회 (유성은 목사)        |
|                | 협력전도사 오 효 남  |                  | 주의뜰교회 (김대열 목사)       |
| <b>은 퇴 장 로</b> | 고 상 돈, 김 대 희 |                  | 주안예교회 (이정필 목사)       |
|                | 박 희 태        |                  | 가슴뛰는교회 (원종선 목사)      |
| <b>장 로</b>     | 박 영 근 (집사장)  | <b>관 리 장 로</b>   | 손 석 규                |
|                | 유 신 응, 조 윤 익 | <b>500/50 교회</b> | (1호) 필리핀 Good Church |
|                | 조 계 승, 윤 호 중 |                  | (2호) 세종 선한교회(신원섭 목사) |

선한교회 오시는 방법



버스간선 151, 350, 360, 462,  
640, 642, 752(호사정앞 하차)  
지선 6411, 5524, 5511, 5517(중점)  
광역 9408  
마을버스 동작01, 10, 21(중앙대병원)

지하철 9호선 흑석역 4번출구 (도보 5분)  
7호선 상도역  
\*5번 출구 하차 후 마을버사용(동작 01, 10, 21)

표 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사 6:8)

Here am I, Send me!

실 천 사 항 기도의 삶 거룩 / 사랑의 삶 선교사의 삶

교회에 대하여 : 같은 마음을 품고 동역하자

삶 의 방 식 개인에 대하여 : 주안에서 항상 기뻐하자

(빌 4:1-7) 성도에 대하여 :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자

문제에 대하여 :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요 17:3)



담임목사 임 춘 배

**오 전 예 배** 오전 11:00 인도자 : 임춘배 목사

|           |                        |
|-----------|------------------------|
| 기 원       | 인도자                    |
| 찬 양 과 경 배 | 26장 (통일찬송가 14장)        |
| 교 독 문     | 교독문 7번 (시편 13편)        |
| 찬 양 과 경 배 | 413장 (통일찬송가 470장)      |
| 말 씬 봉 독   | 요한계시록 2장 1 ~ 7절        |
| 설 교       | 에베소교회에게 주신 말씀 (임춘배 목사) |
| 환 영 및 광 고 | 인도자                    |
| 파 송 의 노 래 | 그렇게 살아가리               |
| 축 도       | 임춘배 목사                 |

**수 요 예 배** 오후 7:30 예배장소 : 본 당 인도자 : 임춘배 목사

선택의 문제 (롬9:9-24) 임춘배 목사

**교회소식**  
 - 예배 중에는 영상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배 10분 전부터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배 안내**
  - 기간: 2월23(주일)~3월31일(화)
  - 주일예배: 11시 예배만 드림 (가정 영상예배)  
※ 홈페이지와 교회공지방 링크
  - 주중예배: 수요일예배만 교회서 드림. 금요일기도회는 영상으로
- 기타안내**
  - 출석체크를 위해 가정별로 영상예배 드리는 인증샷을 담임목사님 개인톡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헌금은 교회 계좌로 입금해주시기 바랍니다.
    - 입금방법 예시 : 김소망십일조, 김소망감사, 김민음건축, 김민음구제, 김민음전도 김민음선교 등
    - 목적인금 예시 : 김사랑목적(입금 후 재정부장에게 목적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기독교한국침례회선한 국민은행 02510104158558
- 코로나19 기도 제목**
  - 코로나 19 종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 코로나 19 치료를 위해 종사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 코로나 19 확진자들의 완치와 빠른 백신 개발을 위해 기도합니다.
  - 중국을 비롯한 모든 나라에 회개와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도록 기도합니다.
  - 코로나 19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받도록 기도합니다.
  - 코로나 19를 통해 성도들의 신앙이 더욱 성장하도록 기도합니다.
- 개인경건훈련 강화**

이 특별기간동안 개인적인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예배드리기
  - 매일큐티하고 기도하기
  - 성경일독하기 [금주범위: 창세기~여호수아] \*일독 기념품 증정
  - 경건서적읽기
  - 부서별 카톡 성경공부

**한주간의 기도제목**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이 그치고 통제되기를  
 정부 당국자들과 의료진들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강건하며 힘을 내기를  
 하나님의 사랑이 믿는 자들을 통하여 증거되기를

# 가정예배

## 역대의 연대를 기억하라

찬송 : '나의 갈 길 다가도록' 384장(통 434장)

본문 : 신명기 32장 7절

말씀 : 모세와 또 그와 함께한 출애굽 1세대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민수기 14장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주시겠다 하셨지만 그 약속을 믿지 못한 채 정탐꾼을 보낸데서 기인했습니다. 같은 본문 23절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모세도 신명기 32장 후반절에서 직접 밝히듯 므리바 사건을 이유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맞은편에서 바라볼 수는 있었습니다.

그런 모세가 자신의 조상 때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땅을 바라보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도 들어가지 못하는 현실 앞에서 단호함이 생겼을 겁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세대는 이전의 세대가 저질렀던 실수를 범하지 않게 해야 했습니다.

모세는 단호한 목소리로 옛날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어떤 옛날일까요.

무엇 때문에 애굽에 들어갔고 그 땅에서 430년의 노예생활을 한 후 누구에 의해 나올 수 있게 됐으며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반역으로 40년간 광야생활을 했던 일을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누가 계시며 처음 계획대로 우리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까지 이끌고 오신 분,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기억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견지해야 할 가장 중요한 자세는 하나님의 일을 정확히 알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다음 모세는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역대의 연대는 조상들의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모세의 부끄러운 고백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대로 이끄시고 함께하셨는데 그들의 조상들은 어떻게 했고 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는가를 생각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모세는 “네 아비에게 묻고 어른들에게 물어라 그들이 대답하리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우리는 어떻게 그 말씀을 대하고 따랐는지를 기억하고 생각하고 따져 물어야 합니다.

모세의 권면은 까맣게 잊은 채 살았던 세대가 어떻게 살았는지 보여주는 사사기 시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음으로 그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입니다.

그들의 왕은 하나님이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이걸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잊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하신 일을 기억하고 아비들은 그 은혜를 기억하고 전해주고 말씀을 상속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속한 전 세대의 책임이요 의무입니다.

# 은혜의 말씀

제목

## 에베소교회에게 주신 말씀 (계2:1-7)

서론

요한계시록은 주님의 초림과 재림사이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였고 소아시아 7교회(모든 세대의 모든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본론

### 1. 에베소교회의 상태

- (1)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① ‘오른손에 있는 일곱별을 붙잡고 일곱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1절) ②모든 것을 아시는 분(2절)
- (2) 주님의 칭찬: ①이단을 배격하기 위해 열심히 수고한 것(2,6절) ②주님 이름을 인해 받는 고난에 인내하고 부지런한 것(3절)
- (3) 주님의 책망: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4절)
- (4) 주님의 경고: ①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행위를 가지라 ②그리하지 아니하면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5절)
- (5) 주님의 약속: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7절)

### 2. 교훈

- (1) 주님께서 우리의 수고를 다 아신다(2절).
- (2) 인내하며 게으르지 말자(3절).
- (3) 첫사랑을 회복하자(4,5절).

결론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기억하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부지런히 섬기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           |  |
|-----------|--|
| 찬양        | 찬송가195장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
| 본문        | 요한복음 16장 16절-24절   |
|           | <p>예수님의 공생애와 관련해 요한복음16장은 예수님의 공생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입니다. 곧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사실을 알고 계셨기에 자신의 처한 상황과 앞으로 전개 될 일들에 대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3년 동안 동고동락한 주님께 대해 여전히 바로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p> <p>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냥 종교적인 학습을 통해 주입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만나서 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 경험적으로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이유를 알고,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은혜와 비밀을 알고, 죽음에서 다시 사시고 승천하신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현존을 아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주님께서 왜 고난 받으셨고, 왜 죽으셨는지를 알고, 어떻게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신 약속은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 고백의 신앙 가운데 말씀 속에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p> <p>제자들에게 주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상실과 절망이었습니다. 그것은 슬픔을 넘어 고통이었을 것이고 근심과 두려움의 시작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제자들의 큰 의지였고 기대였고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미 그런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기에 제자들에게 말씀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용기와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p> |
| 묵상을 돕는 질문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지 묵상해 봅시다.</li> <li>2. 길게만 느껴졌던 인생의 기다림의 순간이 주님 안에서 돌아볼 때 어떠했는지 묵상해 봅시다.</li> </ol>  |
| 오늘의 기도    | <p>하나님,<br/>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불드소서. (시 51:10-12)</p> <p>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p>  |

|            |   |
|------------|---|
| 찬양과 기도     | 사랑하는 주님 앞에 (새 220/통 278) 오직 주의 사랑에 매어   |
| 묵상 나눔      |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와 삶에 적용한 말씀들을 나누어 보세요.   |
| 이야기 속으로    | <p>전 세계에서 12,000~14,000여 종과 100조 마리가 넘는 개체수를 자랑하며 히말라야 산맥과 사하라 사막을 포함한 모든 나라에 존재하는 곤충이 있는데, 바로 개미입니다. 만 단위가 넘어가는 개체가 함께 생활하는 개미는 몸의 분비선에서 나오는 페로몬(pheromone)이란 화학 물질을 이용해 어둠 속에서도 정확하게 의사소통하고 분업 활동을 하며 앞에 닥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뿐 아니라 심지어 다른 종과도 공생해 서로 간의 이익을 극대화합니다. 초개체(superorganism)라 불리는 개미 무리는 군락 자체가 마치 한 개체인 것처럼 움직여 집단 전체의 이익을 도모합니다. 사실 개미 한 마리의 능력은 보잘것없습니다. 하지만 개미 한 마리 한 마리가 각자의 정보를 전달하고, 그 정보를 취합해 내리는 집단적인 결정은 놀랄 만한 효율성을 갖습니다. 비록 미물이지만 성경은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배우라고 말합니다(잠 6:6-8). 개미에게서 배우는 교훈은 성실함과 연합된 개인의 힘입니다. 성경은 민족, 언어, 피부 색깔, 남녀, 종과 상전, 늙은이와 젊은이, 계급 등과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 하나가 될 수가 있다고 말합니다. 믿는 이들이 사랑으로 하나 될 때 악의 무리는 우리를 두려워하고 세상은 변화될 것입니다.</p> <p>혼자 있을 때는 하지 못했지만, 함께 연합해서 성공한 일이 있다면 무엇인가요?</p> |
| 말씀 나누기     | 요한복음 17:6~19  |
| 묵상포인트      | <p>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을 위해 대제사장적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들이 분열하지 않고 하나가 되며, 한 명도 멸망당하지 않고 모두 기쁨이 충만하도록 간구하셨습니다. 또한 악에 빠지지 않고 진리로 거룩하게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도록 간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는 세대를 넘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에게도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죄악이 관영한 이때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핍박과 고난을 당하면 예수님의 기도를 기억하십시오. 도전과 시련을 회피하는 자가 되지 말고 도리어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하는 자가 되도록 힘쓰십시오.</p>   |
| 나에게 주신 메시지 |   |
| 관찰과 묵상     | 예수님은 세상에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 어떤 기도를 드리셨나요?(6~13절) 제자들이 보전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11절)  |
| 적용하기       | 우리에게 허락된 다양성은 무엇이며, 우리는 왜 하나가 되어야 하나요?  |
| 함께 기도하기    | 예수님이 기도하신 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악에 빠지지 않고 하나 됨을 힘써 지키며 진리로 거룩해지게 하소서. 그래서 마지막 날까지 기쁘게 사명을 감당하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게 하소서.   |
| 나의 기도문     |   |
| 기도 (중보기도)  |   |

|           |   |
|-----------|---|
| 찬양        |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
| 본문        | 요한복음 17:20-26   |
|           | <p>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죽음을 앞두고 한 몸 숨기기도 바쁠 그 때에, 산을 오르셨습니다. 무릎 꿇고 소리 내어 외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견고히 하셨고(1-5절),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신 후(6-19절), 이제 언젠가 믿음의 길을 뒤따를 모두를 위해 기도하십니다.</p> <p>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요청할 무슨 자격이 있겠습니까. 마리아가 임신하는 동안 수근 대던 마을 사람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말하지도 못했습니다. 베들레헴으로 향하는 긴 여행에 동행하지도, 출산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좋은 숙소를 구해주지도 손 잡아주지도 못했습니다. 아무 것 없이 태어났던 메시아의 몸에 천 한 조각도 주지 못했습니다. 사단에게 시험당하시는 동안 어떠한 도움도 주지 못했습니다. 침례 받는 자리에 함께 있지도, 사역의 삼 년 동안 동행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도 변하지 않는 영혼들을 바라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해하고 아파하기는커녕, 도리어 그분의 기도문에 내 이름을 살짝이라도 넣어 축복을 받고 싶어 하는 자신을 봅니다. 이런 제가 어떻게 칼을 차고 햇불을 들고 달려오는 군병들을 기다리며 무릎 꿇으신 예수의 팔목을 붙잡고 제발 기도해 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p> <p>하지만 예수님께서서는 잊지 않고 오늘 날을 사는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p> |
| 묵상을 돕는 질문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죄악과 연약함으로 인한 죄책감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돌아봅시다.</li> <li>2. 하나님의 사랑만으로 영광이 족하다 고백할 수 있는지 생각해봅시다.</li> <li>3.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기도를 증언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무엇을 증언하고 있습니까?</li> </ol>   |
| 오늘의 기도    | <p>하나님 아버지, 긴박한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아무 자랑 없고 어떠한 자격도 없는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예수님을 봅니다.</p> <p>오늘도 여지없이 죄책감과 무력감이 우리를 짓누르겠지만 시선 너머의 우리를 소망하시며 기도하셨던 말씀을 힘입어 곳곳이 걸어가고 싶습니다.</p> <p>예수님과의 사귄 삶을 삶의 목표로 삼고 우리 또한 사랑으로 하나됨을 영광 삼아 세상에 예수님을 증언하게 하소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약속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p>   |

|           |   |
|-----------|---|
| 찬양        | 찬송가 358장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군기  |
| 본문        | 요한복음 16:25-33   |
|           | <p>25절에서 33절은 세상을 이기신 주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31절에서 3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p> <p>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전투중입니다. 마치 방송중인 방송실 문 위에 ‘on air’ ‘방송중’이라는 불이 켜져 있듯이 그리스도인은 이미 오래전에도 전투중이었고 앞으로도 전투중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을 거스르는 비진리를 더 선호하고 추종하는 세상 한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결코 가볍고 손쉬운 싸움이 아닙니다. 때론 우리는 도망간 제자들처럼 그 싸움에 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유혹 앞에 넘어지고, 왜곡되고 변질된 복음에 속아 넘어가기도 합니다. 영적 속임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우리 죽을 때까지 계속 될 것입니다.</p> <p>그럼에도 우리가 아는 것은 말씀대로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기도 속에 성령님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위로이며 힘이며 양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경험과 고백으로 오늘도 묵묵히 담대하게 그리스도인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말씀의 길을 따라 하나님의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p> |
| 묵상을 돕는 질문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슬픔과 고통 중에서도 변함없이 말씀과 성령님으로 우리를 평강과 기쁨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그리스도를 묵상해 봅시다.</li> <li>2. 신앙의 싸움터인 세상에서 세상을 이기신 주님과 말씀과 기도 안에서의 담대한 성도의 삶에 대해 묵상해 봅시다.</li> </ol>   |
| 오늘의 기도    | <p>하나님 아버지, 조금 있어 우리가 주님을 아는 주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슬픔과 고통, 두려움 중에서도 주님은 말씀과 성령님으로 우리를 평강과 기쁨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오늘도 말씀과 성령님으로 우리를 주의 평강과 기쁨으로 채우시고, 주의 평강과 기쁨을 양식 삼고 능력 삼아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세상에서 가야하는 말씀의 길을 담대히 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길을 따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표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p>  |

|           |   |
|-----------|---|
| 찬양        | 찬송가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이슬  |
| 본문        | 요한복음 17:1-5   |
|           | <p>오늘 본문인 17장은 십자가의 수난을 당하시기 전 제자들과 가진 마지막 저녁 식사 자리에서 고별설교를 하신 이후 가지신 고별 기도장면입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삶은 언제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데에 목적과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p> <p>우리는 아버지가 예수님께 주신 자들이고, 그래서 예수님께 속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아버지를 알고, 아들을 아는 자가 되었습니다. 은혜입니다. 이제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가 살아야 하는 삶은 은혜를 받은자답게 사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걸으며 복음의 통로로 살아야 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라는 말입니다.</p> <p>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는 주위로 흘러들었습니다.</p> <p>우리 역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본분을 다하는 길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주는 표적으로 삼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또 우리가 서 있는 그 곳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표적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p> |
| 목상을 돕는 질문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이 땅에서의 예수님의 삶의 초점과 목적은 어디에 맞추어져 있었습니까? 나의 삶의 근원적인 초점과 목적은 어디에 맞추어져 있습니까?</li> <li>2. 예수님께서 어떻게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습니까?</li> <li>3.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말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li> </ol>  |
| 오늘의 기도    | <p>주님이 친히 걸으셨던 그 길을 돌아봅니다. 그 길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생명의 길이었고, 또한 영원한 생명을 은혜로 받은 우리 또한 마땅히 걸어갈 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고 또 늘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음도 잊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잘 일궈내어 어떤 환경이든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p>   |

|           |   |
|-----------|---|
| 찬양        | 찬송가 458장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
| 본문        | 요한복음 17:9-19  |
|           | <p>주님은 남겨질 제자들의 입장에서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서라면 다가올 환난과 박해를 이겨내기 위해 권력과 힘, 능력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위기의 상황에 하늘을 날거나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능력, 복음 전파를 위해 죽은 이도 살리며, 병자를 고치고, 인간이 할 수 없는 신적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기도 내용을 살펴보면 제자들의 관점에서 드리는 기도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기도하십니다. 주님은 자신과 하나님이 마치 하나이듯 제자들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제자들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시며,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p> <p>주님이 제자들을 위해 하신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11)</p> <p>주님이 제자들을 위해 하신 두 번째 기도는 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셨습니다.(15)</p> <p>주님이 제자들을 위해 하신 세 번째 기도는 진리로 거룩해지도록 기도하셨습니다.(17)</p> <p>주님께서 먼저 하나님 나라의 표적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표적입니다. 표적된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드러내고 나타내야 할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p> |
| 목상을 돕는 질문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자들을 위한 주님의 첫 번째 기도제목을 보며, 나의 기도제목 중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기도제목들은 무엇이 있는지 기록해봅시다(11절).</li> <li>2. 주님의 두 번째 기도제목을 토대로 생각해볼 때, 신앙생활에서 받은 기쁨은 무엇이며, 삶을 지탱하도록 인도하는 말씀은 무엇이 있습니까?(시 16:11; 요일2:5)</li> <li>3. 주님의 세 번째 기도제목을 바탕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러지기 위해 성별할 수 있는 생활에는 무엇이 있습니까?(17절)</li> </ol>  |
| 오늘의 기도    | <p>세상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 하늘의 관점으로 기도하신 주님을 말씀으로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표적된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세상 관점의 비늘이 벗어지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히 내어드리는 성별의 하루를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p> <p>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p>  |